

“권불십년, 정치는 하지 마라”

43세에 경제수석
47세에 재무장관

전두환부터 MB까지
다섯 대통령 임명장 받았다
능력일까 처세일까 운일까

한학을 하신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다
“년 정치 하지 마라
그리고 순리대로 살아라”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 일했으며 정치적으로 자리 욕심 없이 무리하지 않고 살았다”고 말했다. 이런 그의 삶 뒤엔 아버지의 “권불십년(權不十年)이다. 정치는 하지 마라. 그리고 순리대로 살아라”라는 가르침이 있었다.

이해운 기자의 **살롱**

1980년대 한국경제 도약기 이끈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그가 말하는 리더십과 처세의 비결

다섯 명의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인물이다. 사공일(78) 세계경제연구원(IGE) 이사장. 전두환 대통령은 43세의 그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했고, 4년 뒤 재무장관 임명장을 줬다. 대통령의 이름이 바뀐 뒤에도 재무장관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다. 노태우 대통령, 사공일 재무장관.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은 그에게 대통령 경제 특보,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외교부 대외경제통상대사,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의장 겸 한국대표, 원로국민경제자문위원,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장,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위원장, 한국무역협회장 등의 임명장을 줬다.

한국 정치판에서 명예를 지키기 어렵다. 정권 말기엔 국정 조사로, 정권이 바뀌면 검찰 조사로 오욕의 인생이 시작된다. 실세(實勢)라 불렸던 이들이 존경받는 원로(元老)로 남는 건 극히 드문 일. 당장 이전 정권 실세들을 보라. 그렇다면 사공 일 이사장의 비결은 무엇일까. ‘능력’일까, ‘처세(處世)’일까, ‘운(運)’일까, 아니면 이 모두의 슬기로운 결합일까. 지난날 25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김 대통령은 저한테 국회의원 하라고 수차례 제안을 했어요. 대구 어딘가 구(區)까지 정해서. 끝까지 안 하겠다고 했지. DJP 연합 때도 서울 어느 구 제안이 있었고, 제가 대통령께 전한 거 절의 이유가 이겁니다. ‘내 비교 우위가 정치에 있지 않다.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으니 날 그냥 두라.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내가 왜 국가발전을 위해 안 하겠느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정치판에서 주말마다 상가 누비고 소주 마시고 난 그거에 경쟁력 없다. 체질에 안 맞는다.’”

– 많은 국회의원은 해본 직업 중 정치가 가장 재밌다고들 합니다.

“박태준 총재가 아침에 전화해서 그래요. ‘사공 장관 국회의원 하라고’. ‘정치는 안 합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DJP 연합 고위 인사들이 저한테 그래요. ‘사공 장관, 국회의원 하면 최고다. 딴 건 몰라도, 몇만 명이 모여서 ‘사공일 사공일’ 하면 미친다.’ (웃음)”

– 한번쯤 출마하셨을 법도 한데요.

“우리 아버님이 한학을 하셨어요. 시골에서는 부자집 소리를 듣는 가정의 육남매 막내아들로 태어났어요. 바로 위 형님이 7년 위니깐 아버지 어머니께 사랑을 많이 받았죠. 6·25 일어나고

할 때인데, 내가 아침마다 신문이 오면 정치면 보면서 아버지에게 묻고 그러니깐,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야. ‘권불십년(權不十年)인데, 너는 정치는 하지 마라.’”

– 어릴 적 꿈이 궁금합니다.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 대한뉴스에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나오면, ‘외교관이 돼 외국에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했지. 그런데 아버지는 내게 ‘은행가가 되라’ 하셨어. 일제 치하도 겪고 그랬으니깐 (은행가가) 가장 안정돼 보이셨나 봐.”

– 정치도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출마했으면 뭐 (국회의원) 했겠지. 그리고 안양교도소를 들락거렸겠지(웃음). 정치하면 ‘안양교도소 담배락을 걷는다’잖아. 안으로 떨어지면 교도소고, 밖으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랬어. ‘이 판에 들어가면 그렇게 놀아야 할 것 아니요. 나는 그 판에는 안 갑니다.’”

수석론(首席論) “뒤에서 일하라”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 “나는 경제를 잘 모르는데 사공일 같은 사람이 잘 받쳐줘서 까먹으려고 해도 못 까먹게 했다”고 말했다. 세간의 평가는 나뉘지만, 그 시기에 경제가 크게 성장한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그 뒤엔 사공일이 있었다.

– 4년 최장기 청와대 경제수석 기록이 아직도 안 깨지고 있습니다.

“내가 수석 할 때 대통령이 신임하면 전적으로 맡겨주고, 건의한 건 거의 다 들어주고 했어요. 금융·산업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예요. 우리는 장관을 운동선수처럼 수시로 바꿔요. 대통령 책임제의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고, 내각 책임제의 단점을 스스로 답습해요. 전 6공으로 바뀔 때도 외교와 경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조각(組閣) 전에 연임된다는 거 알았습니까.”

–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무장관 시절, 어떻게 달랐나요?

“내가 아무리 ‘실세 장관’ 이었다고 해도, 청와대 나가면 다 권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수석 때는 하루에도 몇 번을 대통령과 만나요. 장관 보고 때, 대통령이 외국 갈 때, 지방 갈 때 수행해요. 수석이 부총리나 장관에게 힘 안 실어 주면 그들이 일하기 어렵습니다. 수석이라는 자리가 크게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비서 역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문 역할이예요. 내가 수석 할 때는 이게 50대50이었어요.”

B2면에 계속

“권불십년, 정치는 하지 마라” –김영삼 대통령 때만 임명장을 안 받으셨네요.

INSIDE

“조폭 문은 후보들 검증하자” B3면

“조폭 문은 후보들 검증합니다.” 당연히 반박이 불가능한 옳은 주장이다. 문제는 이 대상 후보들이 모두 ‘비문(非文)’이었다는 점이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성남시장 후보로 공천 받은 은수미 전 의원이 과녁. 소위 ‘문빠’ 들은 이들에게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외제차 6대 박살낸 이만배 B4면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 명품로 통하던 핑크색 자동차가 있다. ‘핑크퐁’으로 불리던 이 동네 차와 의사의 닷산 피가로. 이만배 자동차 소유주의 음주 운전 사고로 이 차는 반파됐다. 피가로만이 아니었다. 벤츠 S클래스, 포르쉐 마칸, BMW 등 추가로 7대를 들어받았다. 그의 자동차보험 대물 한도액은 3억원. 과연 이만배 소유주의 남은 인생은.



文 대통령과 악수한 황군 B5면

남북 정상회담 당일 아침 이례적인 풍경이 목격됐다. 소위 ‘태극기부대’의 주축 중 하나로 알려졌던 재향군인회가 문 대통령을 환송하러 나온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6000여 회원이 이날 집회를 가득 채웠고, 문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했다. 황군은 왜 뜨겁게 손을 흔들었을까.



김형석의 100세 일기

반려견 또순이가 죽었다

언제나 잠들기 전에 일기를 쓴다. 재작년과 작년의 일기를 읽은 후에 오늘의 기록을 남기곤 한다.

2년 전 오늘은 ‘또순이’가 죽은 날이다. 강아지 또순이는 그 뿌리가 프랑스다. 어찌다가 그 선조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미국에서 태어난 또순이가 우리 집으로 온 것이다. 그때 나는 노모와 병중의 아내를 보내고 혼자 있었다. 미국에 사는 셋째 딸이 내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데리고 왔었다.

미국에 사는 동안에는 내 딸과 같은 방에서 지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도 2층의 내 방에 머물기를 원하는 눈치였다. 나는 그럴 수가 없어 계단 현관 옆에 머물 자리를 장만해 주었다. 그래도 또순이는 2층에 있는 내가 그리워 언제나 계단 아래서 위쪽만 바라보곤 했다. 내 딸의 설명은 비송(Bichon) 종류 강아지인데 세상에서 주인을 가장 좋아하고 따른다는 것이다. 다 자란 후에도 중간 정도의 고양이 체중밖에 되지 못하는 귀염둥이다.

내가 또순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뒷산을 산책할 때와 앞뜰 잔디밭에서 놀아주는 동안이다. 또순이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



아내 다음에는 나를 가장 좋아한 또순이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나보다 더 빨리 늙기 시작했다

간이다. 뒷산을 걸을 때는 수십 번씩 뒤따라오는 나를 쳐다본다. 잔디 위에서는 내 환심을 사려고 갖은 아양을 부린다. 그러다가 품에 안아주면 내 눈을 쳐다보다가는 반쯤 눈을 감는다. 그 표정이 ‘나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다’는 뜻이었다. 나도 ‘아내 다음에는 네가 나를 가장 좋아하지...’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또순이가 나보다 더 빨리 늙기 시작했다. 2년 전쯤부터는 노화 현상이 뚜렷했다. 나를 졸졸게 해 주기 위해 잔디 위를 뛰어 돌다가도 힘들어서 안 되겠다는 듯이 내 얼굴을 쳐다보곤 했다. 나도 ‘나보다 네가 더 빨리 늙어서 어떻게 하지...’라고 안아주곤 했다.

지방에서 손님이 왔다. 우리는 승관대로 또순이와 같이 손님 차로 드라이브했다. 내 품에 안겨서 내 얼굴과 창 밖을 번갈아 내다보곤 했다. 산책길에서는 즐거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날 보고 또 보곤 했다. 그것이 또순이의 마지막 행복이었다. 이를 후에 또순이는 모두가 잠든 밤에 계단 밑 이층이 보이는 자리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렇게 또순이는 내 곁을 떠났다.

나는 또순이와 같이 거닐던 산길을 걷고 있었다. 또순이가 보고 싶었던 것 같다. 앞을 바라보았더니 또순이가 빛나무 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 여기 있니?’ 하면서 뛰어갔다. 두 팔을 벌렸다. 또순이가 뛰어와 안기지를 못했다. 내가 끌어안아 주었다. ‘내가 보고 싶었지? 왜 서서 기다리지만 했어?’ 하면서 살피보았다. 또순이는 생전과 같이 내 얼굴을 보면서 눈을 감았다. ‘주인님 품 안에서 편안해요’라는 듯이.

꿈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나도 사모해 온 분의 품 안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어야 할 텐데’라고.

연세대 명예교수